



여성의 정치참여

박영숙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여성의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된 4·15 총선

지난 4·15 총선은 여성들이 전면에서 활약한 선거였다. 제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을 당대표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또는 대변인 등으로 앞장 세웠다. 그 결과 여성들에게는 당당하게 정치역량과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 받는 기회가 되었다.

상당기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선거관련 제도개혁운동의 성과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에 대한 열망이 맞물리면서 10명의 지역구위원을 포함한 39명의 여성위원을 제17대 국회에 진출시킬 수 있었다. 유엔의 권고치인 30%에는 못 미치지만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3%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여성의 정치시대>가 열렸다고들 한다.

정치란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이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신이 만들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갈망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종래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데 있었다.

유권자들은 지난 국회의 난맥상을 떠올리며 부패정치 척결, 맑은 정치 실현, 패거리 정치 중단, 상생 정치 실현, 민생과 민족문제만이라도 정쟁꺼리로 삼지 않는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울골은 정치, 생활정치 구현에 여성위원들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오랜동안의 정치관행을 소수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9명의 여성위원들이 새로

운 정치문화를 도출해내는 일에 있어서만은 당내외에서 소속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성위원들의 참여로 국회의 변화 기대

성급한 일이지만 '여성을 다수 국회에 보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는 질문이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위원들을 개인 의원으로 보기보다 한 뭉치로 간주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잘잘못을 여성의원 전체 또는 여성계에게까지 연계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여성계가 제17대 여성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제17대 국회의 여성위원들이 각 정당별 그리고 초당적인 여성위원들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구들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 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위원들을 격려하며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총선전 여성후보자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한 바 있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존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모니터하도록 <제17대 평등국회지킴이>를 출범시켜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여성계가 공동책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이다.

제17대 국회의 정치문화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에 의해 가능하다. 39명의 여성위원이 원내의 주류를 이루기에는 태부족이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후원이 따라주는 한 여성위원들의 참여확대로 정치풍토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